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예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독 ----- 106번 감사절 (2) ----- 다 같이

인도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가축)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축)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아름다운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축) 여호와와는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드리시는도다.

인도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 할지이다.

가축)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축)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 ----- 말은이

성경말씀 ----- 사무엘상 7장 12절 ----- 다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설교 -----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 말은이

찬 송 -----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삼상7:12)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추석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으며,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우리 가족도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부족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은 그동안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도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읍시다.

3.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에벤텔의 고백은 과거만 돌아보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족 앞에도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의 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지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